개화기 꽃 감염 위험도 '매우 위험'

전국 배나무 방제 '비상'

비 그친 뒤 약제 살포 필요… 5~7일 뒤 2차 살포 권고

'과수화상병 정밀예측시스템(https://www.fireblight.org)'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전국 배나무의 개화기 꽃 감염 위험도가 '위험(방제권고)'과 '매우위험(방제필요)'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국 배 재배농가는 13~14일 사이에 개화기 약제 살포를 해야 하며, 13일 비가 예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비가 그친 뒤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개화기 약제 살포는 예측시스템에서 '위험' 단계로 나타났을 때, 24시간 이내 실시해야 방제효율이 높으며, 이를 위해 예측시스템으로 예보된 배·사과 개화기 꽃 감염 위험도 정보를 전국 배·사과 재배 농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13일 기준) 개화기 약제 살포 실시와 관련된 정보를 수신한 배 재배농가는 등록 약제를 1회 살포하고, 5~7일 후에 약제를 추가 살포해야 한다.

또한 사과 개화기는 남부지역의 경우 '홍로' 품종은 4월 13일로 예상되며, '후지' 품종은 4월 18일부터 개화할 것으로 전망 돼, 사과 재배농가에서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를 확인 한 뒤, 적기에 개화기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방제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약제 살포를 할 경우, 반드시 과수화상병 개화기 방제약제로 등록된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약제별 안전사용 시기와 횟수를 점검해야 하며, 다른 약제와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발생해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방약제에 관한 등록 현황과 제품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은 "전국 배·사과 재배농가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 수시 확인과 적기 약제 살포를 당부 드린다"며 "과수원 자가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증상 발견 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대희 기자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과 임정규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직원들과 축하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편분야 지역 농수산물 판로 지원 등서 좋은 평가

전북우정청, 2021년도 우정사업 종합평가서 우편 · 예금 연도대상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임정규)은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우정사업 종합평가에서 우편·예금 분야 '연도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종합평가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지방우정청의 우편 및 금융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우정청을 방문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전북지방우정청 우편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수산물을 전북도청 등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우체국쇼핑에 입점시키고 판매를 지원해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고, 예금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사랑체크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우정사업본부와 고객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예금 분야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임정규 청장은 "우편·예금 '연도대상' 수상을 이뤄낸 전북지방우정청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체국을 사랑하고 격려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집배원을 통한 구호물품 배송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체국 시니어카페 공간 임대 등 다양한 공적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사과 · 배 · 복숭아 2090년 이후 강원에서만 재배 가능

단감 · 감귤, 재배지 증가 예상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산업이 여전히 활발하고 원활한 무역으로 인해 식량난에 대한 위기를 체감상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최근 주요작물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어, 앞으로 50년 뒤인 2070년대에는 주요 과일의 재배 지역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6대 과일의 재배지 변동을 예측했다.

13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연구진이 주요 과일의 총 재배 가능지(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를 2090년까지 10년 단위로 예측한 결과, 사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배, 복숭아, 포도는 2050년 정도까지 소폭 상승한 후 감소했다. 다만 단감과 감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과는 과거 30년의 기후 조건과 비교하면 앞으로 지속해서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207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는 2030년대까지 총 재배 가능지 면적이 증가하다가, 2050년대부터 줄어들고, 2090년대에는 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복숭아는 2030년대까지 총 재배 가능지 면적이 과거 30년간 평균 면적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 급격히 줄어 2090년대에는 강원도 산간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는 총 재배지 면적을 2050년대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이후 급격히 줄어들며 2070년대에는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감은 2070년대까지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재배 적지 등 총 재배 가능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재배 한계선도 상승하며,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내륙 전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감귤(온주밀감)은 총 재배 가능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재배 한계선이 제주도에서 남해안과 강원도 해안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같은 예측 결과는 작물 종류별로 연평균 기온, 생육기 기온 등 재배에 필요한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재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량이 불안정하고 열매 품질도 나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사과, 배는 7도 이하에서 1200~1500시간 이상 경과해야 정상적인 재배가 가능하며, 사과, 포도는 성숙기에 고온일 경우 과실의 착색 불량 등 품질이 나빠진다. 반면 내한성(추위 견디는 성질)이 약한 감귤이나 단감은 겨울철의 최저기온이 비교적 높아야 생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발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SSP5-8.5)를 활용해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를 제작하고, 이 전자기후도로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지도'를 개발했다.

이번에 활용한 시나리오(SSP5)는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0년 발표한 것으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예측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81년~2100년 사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각각 6.9도(℃), 7.0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2년 발표 한(RCP8.5) 상승치보다 각각 2.2도(℃), 1.1도(℃) 오른 것으로, 현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아열대기후대는 2030년대 18.2%, 2050년대에는 55.9%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발한 예측 지도는 현재 많이 재배되는 품종과 재배 양식 같은 재배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분석했다. 우선 기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8.5)로 분석했을 때보다 재배 가능지가 북부나 산지로 약 10~20년 정도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배 가능지의 감소와 확대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농진청은 정책기관에서 과일의 수급 물량 조절 정책을 수립하거나, 농가가 각 농장에 재배 가능한 작물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자료를 농진청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누리집(fruit.nihhs.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최대희 기자

전북 취업자 94만7000명

내실은 계약직 · 아르바이트 위주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 65.5%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13일 발표한 2022년 3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94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고용률은, 남자 69.4%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했으나, 여자 52.5%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남자 5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1.5%) 감소했으나, 여자 41만6,000명으로 8,000명(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4,000명, 10.3%),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2,000명, 7.5%)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2만명, -23.3%), 농림어업(-1만3,000명, -7.4%), 광공업(-7,000명, -5.8%), 건설업(-6,000명, -7.7%)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2만1,000명, 12.2%), 사무종사자(7,000명, 5.3%)에서 증가했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1만2,000명, -7.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1만,000명, -3.4%), 관리자·전문가(-4,000명, -2.6%)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및 사무직 취업자 상승에 따른 여성 취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현장·생산직 기반의 취업자 감소에 따라 남성의 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 도내 기업 유치 및 육성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취업자 노동시간 및 지위별로 보면 도내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하고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일자리 위주로 구성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도내 유치 돼 있는 기업들도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고, 도내 일자리 정책 부족과 수요에 맞게 정책 실행이 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실정이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9.3%)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만1,000명(-24.7%), 상용근로자는 2,000명(-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3,000명(1.2%)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4,000명(-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65만6,000명으로 2만8,000명(-4.1%)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7만9,000명으로 2만4,000명(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7.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3월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고, 실업자는 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2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5%로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희 기자

'투자설렘 펀드로 꽃 피우다'

농협은행, 출범 10주년 기념 펀드가입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다음달 31일까지 '투자설렘 펀드로 꽃피우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금융 출범 10주년을 맞아,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펀드(MMF 제외)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이벤트는 1,000원 이상 공모펀드에 가입하고 '매일'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중 497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두 번째 이벤트는 1만원 이상 공모펀드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배달의민족 1만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세 번째 이벤트는 첫 번째·두번째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성과 이름에 '농, 협, 은, 행, 금, 융' 글자가 들어간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LG스탠바이미TV(3명)를 제공한다.

모든 이벤트는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응모되며(이벤트 기간 내 1회)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한편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아이들의 미래 지켜드립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상용차 인형굿즈 제작 이색 사회공헌활동 전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최준혁) 노사는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미래형 제품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상용차와 페플라스틱을 접목한 환경 부문 이색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지구촌 환경오염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페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우시산과 함께 공장 안에서 수거된 페트병 등 버려진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수소상용차 인형 굿즈 제작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가 생산 중인 수소트럭 엑시언트와 수소버스 일렉시티를 모델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제작한 수소상용차 인형 굿즈는 어린이날을 앞둔 아이들에게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이와 병행해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들과 협업해 수소상용차 인형 굿즈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페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솜을 활용해 수소상용차 인형 굿즈를 함께 만들면서 인류가 현재 당면해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또 세이브 더 칠드런 전북본부와 함께 수소상용차 인형 굿즈를 활용한 클라우드 펀딩 사업도 진행한다. 인형 굿즈 하나를 구매하면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 어린이 보호기관에 양말 한 켤레씩이 기부되는 1대1 매칭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지구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중복기자

숙박업 부문 '우수'

무주덕유산리조트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2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숙박업' 부문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국내 숙박 시설 이용소비자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박 시설을 선정한 후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전라도 지역 1위 숙박시설로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지난 2월~3월 포털사이트의 리뷰 수 및 평점 등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 외 지역별 1위 숙박시설로는 ▲강원도 소노벨 비발디파크 ▲경상도 아르떼 리조트 ▲제주 금호제주리조트 ▲충청도 포레스트 리솜 ▲부산 한화리조트 해운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숙박업'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별 우수 숙박시설을 알리고,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전면적인 객실 리모델링으로 국내 여행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총 13개 동 974실 중 8개 동 601실의 노후화된 객실을 새로운 디자인 및 비품으로 교체 설치했다.

/무주=전문선기자